

## 종단 먼저 바꾸겠다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국민 행복 · 평화 우선”

출법 3년차인 조계종 제33대 집행부가 ‘하화중생의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국민의 행복과 평화 실현’을 2012년 종단운영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2년은 조계종 출법 50주년의 해이자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라며 “종단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여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계종은 2012년 한해 ‘대중공사’ ‘천일기도’ ‘쇄신전략’을 추진한다.

대중공사는 ▷수행-불교관 · 수행관 중심 ▷종단운영-지역적 운영 ▷전법-불법호지 위기의 성찰 ▷사회참여-사회갈등 대안제시와 사회참여 기준 등으로 주제별로 중앙 · 직할 · 교구 · 지역사찰 단위별로 추진된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형 ‘웹 대중공사’도 추진된다.

천일기도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천일기도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초청 무차대회 ▷소통 · 화합을 위한 ‘사부대중 아난법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 천일기도를 통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중심으로 민족사 · 문명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시민초청무차대회는 각계각층의 시민을 부처님 모시듯이 공양 올리는 과정 등이 포함된 행사로 조계종

이 추진하는 나눔결사 실천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사부대중 아난법석은 개인 · 사회 · 문명사적 문제를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문화결사의 일환이다.

도법 스님은 “아난법석을 통해 우리 시대에 새롭게 조명되고 실천화된 대승불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전략은 사찰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역사찰과 직할교구 공찰의 재정공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비롯해 불사관리위원회 신설, 국고보조금 불

### 화합 · 신심 · 원력 · 공심 강조

### 웹 대중공사로 소통 확대

### 종단 미래 50년 비전 선포

### 한국불교 세계화에 역점

사 사찰 대상 관리 강화, 중앙종무기관 조직 점검, 신도의 종단운영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모든 직할사찰의 재정공개를 올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극복과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다양한 활동도 마련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소외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선재의 선물보내기 ▷비움과 나눔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만행모금’을 통해 연3000여 명에 대한 기

금 · 후원물품 지원 사업 전개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내 꿈 찾기 사업’ 등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종단출법 50주년 기념사업과 한국불교 세계화 ·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한다.

종단출법 50주년을 맞아서는 자료집 발간과 학술세미나 · 전시회 개최, 대중공사에 기반한 사부대중 결집대회를 통한 과거 50년 점검과 미래 50년 비전 선포를 준비 중이다. 또, 수도권포교 활성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서는 6월 11일 여수에서 열리는 WFB한국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유네스코 롬비니 복원계획 동참, 국제불교학술대회 및 외국인 수행자 연수 등 해외 특별교구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전통사상서 번역사업과 사찰음식 · 템플스테이의 해외홍보도 지속키로 했다.

사회적 공동선 실천을 위해서는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실천사업, 사회현안 갈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제시 활동과 종교간 평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 협력사업과 종교평화선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불교계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교지도자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인 불교포럼도 1월 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진년 한 해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라는 중징에하의 교시를 받들어 ‘화합’을 근간으로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효일당 범행 대종사 원적

### 법랍 64세 · 세수 91세 19일 법주사서 영결식 업무

보은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 대종사가 1월 15일 오전 1시경 수원 팔달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4세, 세수 91세. 스님의 영결식은 19

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업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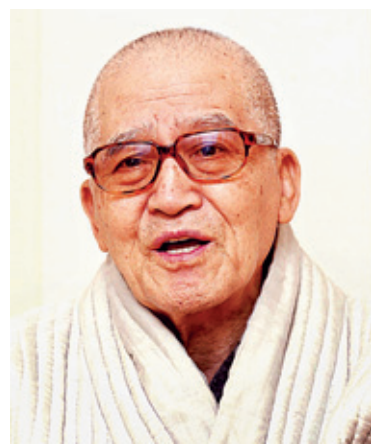
범행 대종사는 당대의 선지식이던 금오 스님(1896~1968)과 해암 스님(1879~1944)의 지도를 받은 선승임에도 종단 행정과 군포교 등 중생교화에도 앞장서 왔다.

대종사의 가르침은 ‘사교입선’이

었다. 범행 대종사는 범문할 때면 참선에 들기 전 <화엄경>까지는 불것을 대중에게 권했다. 부처님 말씀은 도에 이르는 길인데 길을 모르고서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스님은 “일생동안 많은 일들이 꿈속에서 일과 같네. 한생각 내려놓으니 걸림이 없으니 기쁘고 기쁘다(一生多事 夢中如幻 一念放下 無得歡喜)”라는 임종계를 남겼다.

관련기사 4면 조동섭 기자



### “금메달로 보답할게요”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홍)가 1월 18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임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2012 런던올림픽 선전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 스님, 이기홍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불자국가대표선수과 지도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선수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정신을 갖고 남은 올림픽 기간을 잘 마무리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합장주를 선물했으며, 태릉선수촌 법당 지도부사를 위촉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한문불전 수학승 전원 장학 수혜키로

### 조계종-동국대 불교학술원 MOU 체결...스님 특별전형도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교육학과와 한문불전아카데미에서 수학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장학혜택을 받는다. (본지 제871호 1월 13일자 보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협력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는 종단의 한문불전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조계종 스님이 진학시 동국대가 65%, 종단이 35%를 지원해

전액 장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스님 5명을 교육원 추천으로 우선 선발키로 했다. 불교한문아카데미도 스님 10명을 우선 선발하고 종단이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 전액 장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 (02)2011-1804 조동섭 기자



###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 2월 3일까지 이메일접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5월 28일)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글자 수 10자 내외로 부처님오신날의 참뜻과 지혜 · 가르침을 알리는 내용, 사회적 소통과 화합을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는 내용 등이면 된다. 기간은 2월 3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메일(kang@buddhism.or.kr)이나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 2011-1744 조동섭 기자

### 872호 CONTENTS

종단 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 신년계획 총지침 피안에 유기농장 조성 진각종 새해 불공서 화합 다짐

종합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지관 스님 사리 공개

시방세계 인천불교회관 108산사순례



나눔 생명나눔실천본부 신년계획

## 젊은불자 육성 100억원 기금마련 발원대회

### 2월 18일 대불련

젊은불자 육성을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이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고 1차로 올해 말까지 30억원을 모금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월 18일 오

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젊은불자 육성 100억원 기금 마련을 위한 발원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대불련 재학생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동문회 주요활동 소개, 향후 사업계획 보고, 다짐의 시간 등이 진행된다.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현

재 국내에는 350여 대학에 310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불교활동을 하는 학생은 50여 대학 1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청년불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관련기획연재 13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심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심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근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약만)

도자기 앞면과 뒷면은 심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가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시에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마산 김관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심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1cm x 둘레 9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에 최고급 여주 백자(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설날 파격 선물 SET (발송에서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298,000 → 198,000원

#### 1) 심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받그릇, 무경,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지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식사를 하는 반상기(받그릇, 무경, 국그릇) 또한 소중한 선배되어야 합니다.

#### 2) 소품 연화 약 찻잔 5P



절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매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찻잔입니다.

#### 3) 진품 포대화상도 작품 (10호)



진품 포대화상도를 집안에 모셔두면 가정에 화목을 이룰 것이요, 밝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밖에 있는 복을 집안으로 불러 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곡

#### 5) 부부용 순금카드 2점



복 포대화상1점은 부인이 간직하면 집안에 복이 가득차고, 용달마 1점은 출근하는 남편께서 지갑에 넣어 다니시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 4) 진품 달마도 작품 (10호)



진품 달마도는 그 속에 나오는 강력한 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액을 막아 주어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언제나 아늑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곡

#### 6) 2012년도 미니카렌다 (차걸이겸용)



청곡 화백의 작품으로 포대화상 6점, 달마도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차안에 걸어 두시면 안전운행을 지켜 줄 것입니다. [크기: 가로 9cm x 세로 10cm]